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확대 시행된 후... 현재는

인터뷰_사람&issue

전남/빛가람 건축사사무소 최세호 건축사



유럽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시론 02

안전 불감증과 안전생활화 그리고 건축_서재형

기획 03

2013년 9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확대 시행된 후 현재는...

설계경기 04-05

남구 구민도서관 건축설계경기 / 효천중, 지원초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학술 06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1부_김영문

사람 & issue 07

전남건축사회 나주지역 관할에도 바른 건축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세호

유럽 여행기 08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1부_조성진

NEWS 09~11

IFoU가 진행하는 여름학교 전남대학교의 주최 하에 개최 / 2014 광주·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광주 남구 구민도서관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 동 준 건축사

효천중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 금 열 건축사
 + 휴엔 건축사사무소 박 주 현 건축사

지원초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 영 돈 건축사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 주 경 건축사

안전 불감증과 안전생활화 그리고 건축



건축사서재형
건축문화사상 편집인
건축사사무소 선 대표
archiseo@nate.com

건축사에게는 예술성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필요하다. 적어도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안전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건축사의 '안전의식 생활화'는 필수적이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연일 세상이 떠들썩하다. 최근에 일어난 굵직한 사고만 살펴봐도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 때 안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을 정도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최대의 사고는 세월호의 침몰이었다. 세월호 침몰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대형 사고였다.

그 와중에 우리 건축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건축 혹은 건설과 관련된 사고도 줄을 이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목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사고, 아산 오피스텔 부실공사와 붕괴사고, 고양 종합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등이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 사고이다. 이밖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건축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W. Heinrich)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1:29:300이라는 법칙을 발견했다. 중대한 재해가 1건 발생하기까지는, 보통 규모의 재해가 29건이나 반복되어 일어나고,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은 300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하찮게 처리할 경우, 그 원인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대형사고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안전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식은 우리 건축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흔히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건설안전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건축물 안전에는 시공과정에서의 건설안전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사용상의 안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고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건설안전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 중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6.61%와 25.3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조업을 합산한 수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근로시간 대비 재해건수와 근로시간 대비 근로손실 일수,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 등을 나타내는 지표 모두는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은 최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개선될 여지는 그리 높지 않다. 안전관리비의 전용, 형식적인 안전교육, 불충분한 정리정돈, 장식물로 전략한 안전장비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은 어떠한가? 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대부분 대형 인명사고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직결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단일 재해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쾌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조설계가 미흡한 경우도 있다. 설령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설계에 안전을 기한다하더라도 부도덕한 사업성과 연계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감독 책임이 있는 허가기관에 그러한 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는 시스템도 허술하고 전문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도 살펴보자.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탐욕과 사용자의 과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본적으로는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 등의 사회풍조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잡한 피난경로와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규정을 악용한 사례 등이 다수의 화재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즉, 설계나 시공은 적법하게 이뤄졌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한 경우가 없진 않다는 것이다.

건축인들은 건축이 삶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표출하곤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만큼 책임과 사명도 막중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업무도 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건축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생성으로부터 유지관리를 거쳐 철거와 말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며, 때로는 각 전문분야를 총괄하여 건축행위를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한 건축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에게는 예술성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필요하다. 적어도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안전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건축사의 '안전의식 생활화'는 필수적이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추구하고,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하며,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거나,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스스로부터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워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황금만능주의를 용인해 버렸고, 대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했다. 안전 불감증도 그 중 하나다.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루며 선택의 기로에 당면해 있다. 반복되는 우환을 대대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기본부터 정립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건축 설계 업무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으로 지친 업무 현실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변화를 만들 것이며 그 변화는 "건축"의 진정한 가치와 자부심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4월에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한 기술콘서트2014를 건축사님과 실무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건축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6월에도 계속됩니다.

- 6월 03일 (화) 서울 (강북)
- 6월 05일 (목) 원주
- 6월 10일 (화) 순천

- 6월 12일 (목) 전주
- 6월 17일 (화) 수원
- 6월 19일 (목) 제주

행사 지역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www.MidasArchi.com/concert

본 기술 콘서트는 건축사실무교육(자기개발분야 1시간)이 인정됩니다.

행사 관련 문의

이혜린 031.789.4268 / hrlee@midasit.com
이정재 031.789.2019 / jilee@midasit.com



2014 MIDAS Technical CONCERT

전국 20개 도시에서 마이다스 기술 콘서트 201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확대 시행된 후 현재는...

- 건축허가 절차중 하나로 거의 모든 용도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일부 제외)에 대해 의무화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검토 제도
- 시행 1년 여간 제도 운용 평가는 낙제점... 계획서 검토 기간여 1개월을 넘어가기도 해 건축주에 경제적 피해사례도... 4개에 불과한 검토 기관이 전국 254개 허가 지자체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검토... 인력도 150여명 정도 밖에

지난 2013년 9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확대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도가 준비 미흡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 주고 있다.

확대 시행된 제도의 주요 골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범위를 연면적 500㎡ 이상의 거의 모든 건축물로 대폭 넓힌 것이다. 다만, 단독주택, 동식물원,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의 제도는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제도로 실효성은 반감되었고,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노력들... 그러나

작년 7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온라인 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약2달간의 시범운영에 나섰고 9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검토기간이 늘어났다. 국토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지난 4월 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도의 불합리한 사례 조사에 나섰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건축사들이 지적한 부분은 처리기한 지연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불통 그리고 권위적인 업무처리 등이 주를 이루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그리고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4개 기관(총 15군데)으로 전국의 254개 허가지자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담당지자체 (광주전남전북 지역만 표시)

▶ 에너지관리공단(전국 총 76개 허가지자체 담당)

지역	허가지자체
광주전남	광주(북구, 서구), 전남(전라남도, 순천시, 장흥군, 곡성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신안군)
전북	전주시

▶ 한국시설안전공단(전국 총 60개 허가지자체 담당)

지역	허가지자체
광주전남	전남(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화순군, 함평군, 보성군, 진도군, 구례군, 광주(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 한국감정원(전국 총 61개 허가지자체 담당)

지역	허가지자체
광주전남	광주(광주시 남구), 전남(무안군,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해남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 한국교육환경연구원(전국 총 57개 허가지자체 담당)

지역	허가지자체
광주전남	광주(광산구), 전남(목포시, 강진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북	완주군, 김제시,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장수군

이 4개의 기관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중앙(서울)에서만 검토가 가능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12개 지역 본부가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 기관별 담당인원 수

기관명	배치인원	비고
한국시설안전공단	9인	본부(서울) 전담
한국감정원	10인(5인 상시)	
한국교육환경연구원	10인	
에너지관리공단	51인 서울(9인), 인천(2인), 경기(10인), 대전충남(5인), 충북(4인), 광주전남(2인), 전북(2인), 대구경북(3인), 부산울산(6인), 경남(6인), 강원(1인), 제주(1인)	각 지역 본부별로 나누어짐
계	70인	상시인원 포함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2013년 규모별 건축허가 현황(5백㎡ 이상)

건축허가	단위 : 동	시도	합계
시도	합계	경기도	8,607
전국	35,515	강원도	1,231
서울특별시	4,118	충청북도	1,641
부산광역시	1,693	충청남도	2,623
대구광역시	1,563	전라북도	1,460
인천광역시	1,361	전라남도	1,520
광주광역시	1,097	경상북도	3,141
대전광역시	590	경상남도	3,141
울산광역시	763	경상남도	2,671
세종특별시	617	제주특별자치도	819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 참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활용에 대해...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최초로 실시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며, 500㎡ 이상과 미만으로 1급 자격과 2급 자격으로 구분됨) 시험에 전국에서 총 1만 여명(1차 시험)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108명(1급 합격자는 95명)으로 발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평가사 시험 관계자는 "이번 합격자 일부를 비상근 인력으로 고용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고 밝히자, 이 관계자는 "국가자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격자들에 대한 활용계획이 당분간 보류되었고, 추후 다시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사 에너지평가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평가사는 일부분적인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이 아님으로 국가 전체적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일자리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현재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도에 대한 확대시행은 정부의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저히 준비되지 못했고, 소홀하게 이루어진 검증절차(약 2개월 정도만 시범 단계를 거친 온라인 검토시스템 적용)로 시행된 제도가 건축을 업으로 삼고 사는 모든 이들과 건축주인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했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어떠한 개선책이 나올지... 기대감을 가져본다.

AUTODESK 제품 프로모션 안내

2008이하 단종버전의 마지막 할인 업그레이드 기회!

| 기간 | 2014년 7월 18일까지

| 대상 | 오토데스크 전 제품 구버전 보유고객, 신규구매 고객 (* BC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가능)

AutoCAD Architecture 2015

건축전문가를 위한 지능화된 CAD

- AutoCAD 대비 작업시간 최대32%단축
- BIM 기본 제출 포맷인 IFC 포맷 내보내기 지원

Building Design Suite 2015

CAD&BIM을 위한 최상의 S/W

- AutoCAD/ AutoCAD Architecture / Navisworks / AutoCAD Revit/ 3ds Max Design등 10개이상 제품 포함

최대 30%



아이패드mini 증정 (3copy이상 구매 시)

특별 혜택

4_ 설계경기

주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하여 [남구 구민도서관] 건립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함.

발주처: 광주시 남구청 설계공모방식: 제한경쟁공모

당선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리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남구 구민도서관 건축설계경기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0-1번지 외 5필지
대지면적 : 3,689.00㎡
건축면적 : 1,217.11㎡
연 면 적 : 2,096.99㎡
건 폐 율 : 32.99%

용 적 륜 : 30.68%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마 감 : THK3 알루미늄 쉬트, THK6 고밀도 목재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11대(지하11, 장애인주차1대 포함)

당선작

박 동 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0-1번지 외 5필지
대지면적 : 3,689.00㎡
건축면적 : 1,613.07㎡
연 면 적 : 2,068.26㎡
건 폐 율 : 43.73%

용 적 륜 : 43.10%
규 모 :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로이복층유리, 칼라콘크리트
주차대수 : 11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우수작

봉 환 성 + 최 재 영 건축사
리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효천중(가칭) 및 지원초(가칭) 교사신축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학교 건축물의 기능과 더불어 주변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독창적이고 친환경적인 양질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방식을 통하여 공모함.

효천중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52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7,075.80㎡
 건축면적 : 3,630.63㎡
 연 면 적 : 10,201.47㎡
 건 폐 율 : 21.26%

용 적 륜 : 54.45%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붕)
 마 감 : 금속패널, 치장벽돌쌓기, 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55대(장애인주차3대, 확장형주차20대 포함)

발 주 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
 당선작 :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휴엔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 지면구성상 미게재

당 선 작

오 금 열 건축사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박 주 현 건축사 휴엔 건축사사무소



지원초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9-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1,388㎡
 건축면적 : 3,144.31㎡
 연 면 적 : 8,434.22㎡
 건 폐 율 : 27.61%

용 적 륜 : 71.23%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벽식구조(본관동), 철골조(강당동)
 마 감 : 고밀도 목재패널, 로이유리, 컬러알루미늄복합패널, AL 수직루버
 주차대수 : 47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발 주 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
 당선작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협의하여 미게재

당 선 작

조 영 돈 건축사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김영문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kym@jbnu.ac.kr

1부 : 바람(풍하중)에 대한 이해

건축문화사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얼떨결에 수락을 했는데, 딱딱한 전공분야를 이해하기 쉽게 글로 써 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에, 걱정과 후회로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가 일단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되었다. 바람(풍하중)을 생각하거나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풍설계 분야에서 국내외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께 지면 강좌를 청해 보았다.>

내풍공학(wind engineering)의 등장

대기권에서 항상 부는 바람(wind)이 지상에 세워진 건축물에 부딪히면, 바람은 풍하중(wind load)으로 작용하게 되며, 여러 종류의 풍하중 효과(wind load effect)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풍하중 효과로는, 강풍(strong wind)에 노출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의 파괴나 부분적인 손상을 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현대식 고층건물이나 장대교량 등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흔들림(진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당연히 그로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도 뒤따른다.

1940년 7월에 미국 시애틀 교외의 타코마 해협에 세워진 타코마 내로교(Tacoma Narrow Bridge)가 개통한지 4개월 정도 지나서, 풍하중에 의해 약 1시간 정도 비틀림 진동이 심하게 발생 한 후 교량 전체가 붕괴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대형사고가 있었다. 타코마교는 총길이 1525m, 중앙경간이 853m인 당시 세계 3위의 현수교로서, 현수교 설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페르그송 교수가 설계했던 것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첨단기술인 교량 보의 단면이 낮은 플레이트 보강형 H형 단면을 사용했는데, 공기역학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어, 풍속 19m/sec 정도의 바람에 의해 심하게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교량 전체가 붕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타코마교의 붕괴 원인이 구조공학자들이나 교량전문가들이 아닌 항공 유체역학분야의 권위자였던 폰 칼만 교수에 의해 밝혀지게 된 사실이다. 타코마교 사고 이후 내풍공학(wind engineering)이라고 하는 학문분야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1 타코마교의 붕괴

바람이란?

이와 같이 풍하중으로써 구조물에 작용하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바람이란 무엇일까? 공기가 어느 정도 이상의 큰 공간에 존재하게 되면, 이런 공간에서는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 바람이란 공기의 움직임 즉, 운동이다. 이때의 운동은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대기의 경우, 상하방향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약 10km 정도인 대류권으로 한정된다. 그로 인해 상하방향의 운동은 수평방향의 운동에 비해 현저하게 구속을 받게 되며, 수직방향의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기의 운동 즉, 바람(풍)은 대부분 수평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풍속(mean wind velocity)이라고 하면,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지역에서 10분 동안에 측정된 순간풍속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때 작은 스케일의 풍속은 평균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풍속 또한 대부분 수평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운동하는) 풍속은 3차원 벡터량이므로, 수평의 2차원 벡터량으로도 고려할 수 있어서, 풍속과 풍향으로 나타내는 것이 관례다.

공기의 움직임(바람)에 대한 지표면의 영향은,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지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영향으로 수평방향의 움직임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마찰력에 의해 풍향과 풍속이 영향을 받는 범위의 기류를 대기경계층(atmospheric boundary layer)이라고 한다. 이런 대기경계층은 지표면의 조도(surface roughness: 지표면의凹凸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장애물이 많아 지표면의 조도가 높으면 그에 따라 대기경계층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기경계층의 높이는 평균 1000m 정도가 된다.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바람의 움직임의 변화 즉, 운동의 변화는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대기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기압경도력(pressure gradient: 높이에 따라 변하는 등압선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로 이루어지는 힘)과 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중력은 기압의 수직경도에 의한 힘과 대개 소멸하게 되므로, 대기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은 수평방향의 기압경도력이다. 그리고 지표면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가속도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고정된 좌표계로 이러한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에 따른 관성력인 전향력 즉,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을 도입해서 다루게 된다.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바람의 경우, 지표면의 영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평방향 기압경도력과 전향력 그리고 마찰력 등 세 힘이 서로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반면에 대기경계층보다 상층부인 자유대기층(free atmosphere layer)에선 지표면에 의한 마찰력의 영향이 없으므로 <그림 3>처럼 수평방향 기압경도력과 전향력 등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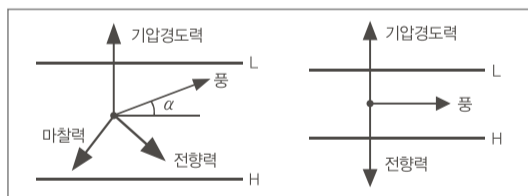


그림2 대기 경계층내의 힘의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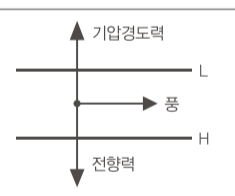


그림3 자유대기층에서의 힘의 평형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바람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대기층에서 부는 바람보다 풍속이 약하게 되고, 특히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작용으로 인해 상층부의 바람보다 좌측으로 향해서 불게 된다. 이때 전향력은 풍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기경계층 내의 전향력이 자유대기층에서의 전향력보다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기압경도력은 대기경계층이나 자유대기층 모두에서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지표면의 부근에는, 풍향이 높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대개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기층이 있는데, 이 기층에선 풍속이 상공보다 약하고 전향력은 기압경도력에 비해서 매우 작고, 마찰력은 전향력보다 크게 되는데, 이러한 대기의 층을 접지층(surface layer)이라고 하며, 접지층의 높이는 지상에서 50m 정도가 된다.

바람의 시간적 변동

대기경계층 내인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불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지표면의 조도가 심한 대도시 도심에서 부는 바람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표면의 조도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의 크고 작은 와(eddy)때문이며, 이러한 대기의 흐름을 난류(turbulence)라고 한다. 이러한 난류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강해지고, 멀어질수록 약해지게 되어 일정한 풍속을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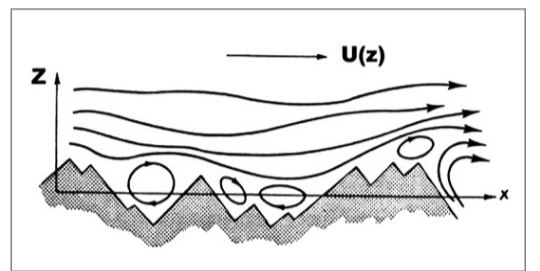


그림4 지표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와

바람의 공간적 변동

바람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사실은, 풍속이 공간적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수평방향으로 부는 평균적인 바람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표면상의 물체의 저항 때문에 아래쪽 방향의 풍속이 적어지고, 와가 발생하게 된다. 산이나 큰 건물이 있다면, 속도가 빠른 곳이나 느린 곳이 있게 되더라도 와가 생성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생성된 와가 모이게 되면,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수의 작은 와로 변화해 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적은 와는 그림 5에 표시된 방향만이 아닌 다른 모든 방향으로 회전운동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면서 혼합되어, 크기도 다양하고 수명도 짧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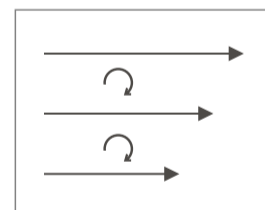


그림5 평균적인 바람과 와

이상과 같이 대기경계층 내에서의 풍속은 주로 지표면 조도의 영향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 해 보면, 지상에서 높이 약 1000m 이내인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바람은 기압경도력, 전향력 및 지표면의 조도 상태 그리고 적지만 태양열에 의한 지표면 복사열 효과 등에 따라서 풍속이 변하게 된다. 그런데 내풍공학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강풍(strong wind: 대개 평균풍속의 크기가 초속 10m 이상일 때를 말함)의 경우에는, 주로 지표면의 조도 상태에 따라 풍속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해안가나 수면 위와 같이 지표면의 조도가 적은 경우에는, 변동풍속성분은 감소하게 되고 평균풍속은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풍속 효과가 커지게 된다. 반면에 대도시의 도심과 같이 지표면의 조도가 큰 경우는, 변동풍속성분이 증가하게 되고 평균풍속은 감소하게 되어 변동풍속 효과가 커지게 된다.

참고로 지표면 조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대기층 높이에서 부는 바람의 경우는, 변동풍속성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게 되어 주로 평균풍속성분만으로 풍속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람을 경도풍(gradient wind velocity)이라고 하며, 경도풍이 부는 높이를 경도풍높이(gradient wind velocity height)라고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전남건축사회 나주지역 관할에도 바른 건축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리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_ 나주지역 건축사회장 최세호 건축사

전남 나주시를 비롯해 영광군,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등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전라남도건축사회 나주 지역 회장으로 젊고 유능한 건축사가 올해 초 선임됐다.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최세호 건축사(이하 최 건축사), 작은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최 건축사는 임기 중 최대의 목표로 감리공영제 시행을 언급했다.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회원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또한 엿볼 수 있었는데...

다음은 지난 6월 3일 최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센텀빌딩 신축공사

전라남도건축사회 나주지역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사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을 하였으나, 아직 나주지역 회장으로로서의 자격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회원들이 추대해 주신 만큼 나주지역 여러 회원들과 소통하고 나주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당면과제인 감리공영제를 도입하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때 과내 동아리인 T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학생 공모전 출품, 광주·전남 디자인캠프 1기 수료 등을 하면서 건축의 열정을 배웠고, 졸업 후에는 서울과 광주에서 10여 년간 설계 실무를 배웠습니다. 2007년도에 건축사를 취득하여 고향인 나주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지금은 직원 2명과 함께 조그만 한 프로젝트지만 최선을 다해 건축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라’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는 변수와 사유로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회피하기 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최선책을 찾고, 최선책이 아님 차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아직 건축적 철학을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면서도 한국적 정서가 담긴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 한국적인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 건축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 할 때 건축주들께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오리알, 헛개즙, 돼지 뒷다리 등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될지 모르나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건축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 감리에 신경 쓰지 못할 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학부시절에는 세계적인 거장,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려 했으나,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자기 소신껏 작품활동을 하시는 모든 건축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하던 시절(97년쯤), 광주의 젊은 건축사들의 모임인 ‘터’ 모임에서 각 사무실 직원들을 한명씩 차출하여 전원주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사무실 직원들과 건축을 얘기하고 모형작업, 전시회를 준비 할 때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시절 선배 건축사님들의 열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높은 수능점수와 공대에서 이례적인 5년의 학부과정, 그리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후에 고시만큼 어려운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만 건축사로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건축사는 되기도 어렵고, 또한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생활을 담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건축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우선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주지역의 지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나아가서는 건축사로서 긍지를 갖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실력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건축사가 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전남 나주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최세호 건축사

▣약력

- 1990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 1994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학사)
- 2007년 건축사면허 취득,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개소
- 2012년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수료
- 2014년 전남건축사회 나주지회장



▲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



▲ 나주 인라인경기장 지공공사

취재 : 서재형, 박신남, 박종호 건축사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최세호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목포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 삼한지세트장 조성공사



▲ 전남영상미디어센터 신축공사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_1부

» 영국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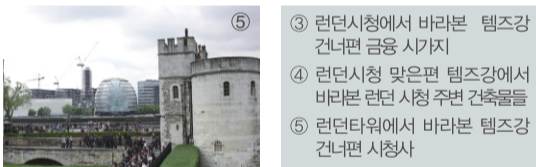
조성진 주부
광주 서구 금호동

2년마다 가는 10일간의 유럽여행은 나를 열정적이게 만든다. 의도치 않은, 항상 똑같은, 반복적인 생활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새로운 여정의 여행은 나를 다시 찾게 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한다. 그래서 더 즐겁다.



① 런던 시내 풍경 ② 런던 풍경

여행 첫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국 날씨,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온다더니 여긴 지금 런던이라는 걸 되새겨 주는 듯했다. 맑으면 화창해서 정말 좋고, 비가 와도, 구름에 가려 흐려도 운치있고 감성적이게 하는 런던의 날씨가 마냥 좋았다. 외곽에 위치한 호텔에서 런던 시내로 향하다 보니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지어졌다는 오래된 주택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과 전혀 다른 스타일에 동화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이 바로 와닿는다. 공기정화에 좋다는 포플러 플라타너스 가로수도 운치에 한 몫 하는데, 시원하고 풍성하게 뽀얀 푸른 앞들이 비를 맞고 싱그러움을 더 해 기분까지 상쾌했다. 도심 골목 골목을 지날 때 마다 넓게 잘 조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녹지대 공원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직장인들의 쉼터로 누릴 수 있는 이 여건이 부럽기도 했다.



③ 런던시청에서 바라본 템즈강 건너편 금융 시가지
④ 런던시청 맞은편 템즈강에서 바라본 런던 시청 주변 건축물들
⑤ 런던타워에서 바라본 템즈강 건너편 시청사

첫날 타워 브릿지로 향하면서 옛 건물과 옛 시가지에 어우러져 있을거라 상상했다. 하지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샤프하고 세련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반전이었다.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타워 브릿지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런던의 현대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멋지고 흥미롭다. 2002년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달걀모양을 닮은 피사의 사탑을 연상케 하는 런던 시청 건물은, 유리로 된 건물 자체는 태양열이 모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하수를 재사용해 환경친화적 건물이라 한다. 또한 나선형으로 내려오는 계단은 시민에게 오픈된 시정을 의미한다고 하니 그 의미 또한

멋지다. 버스에서 내려 브릿지로 향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작품이라는 더 샤프 건물, 서유럽에서 최고층 건물이며 이름처럼 샤프한 삼각뿔 형태의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런던은 전통적이고 고풍스런 이미지일 일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고 있는 런던의 새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에 여유있게 걸으면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미뤄본다.



⑥ 트라팔가 광장엔 내셔널 갤러리 ⑦ 웨스트엔드 뮤지컬 극장 거리

여행을 하면서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자산을 얻은 것처럼 뿌듯하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런던 최초의 미술관으로 많은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정말 보고 싶었던 고흐의 작품들은 유료였다.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전시관을 나누어 전시하였고 13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회화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빛의 예술가 렘브란트, 바로크적 미술 루벤스,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의 작품 그 외 등등. 아이들과 함께 보기 위해 미술책을 구입하였는데 그 책속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왔다는 게 정말 흐뭇하다.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행정, 상업, 문화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극장 밀집 지역이며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양대 뮤지컬의 메카라 한다. 도시를 구경하면서 많은 뮤지컬 극장을 볼 수 있는데 간판에 세계 4대 뮤지컬인 레미제라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으로 제작되었다는 스텔러 라이브 등. 스페인의 열정적인 플라멩고를 보고 왔던 것처럼 두 번째 여행때는 런던의 오리지널 뮤지컬도 즐겨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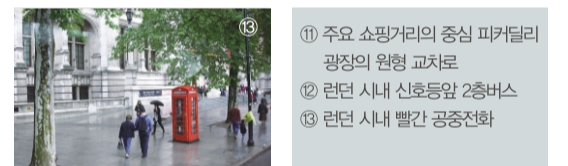


⑧ 런던 재래시장 버로우마켓
⑨ 거리의 공연 코벤트가든
⑩ 코벤트가든에서 티타임 영국의 흥취를 즐긴다

반듯하고 깔끔한 세련된 도시 풍경에서 일탈, 가장 사람 사는 곳 같은 영국식 먹거리 장터 버로우 마켓과 코벤트 가든도 다른 명소 못지 않게 가보고 싶었

던 곳, 영국 사람들의 시장 풍경도 궁금했던 곳이기도 하다. 버로우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런던의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이 곳에서 장을 본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탐스러운 빛깔의 토마토와 피망, 브로콜리, 싱싱한 야채와 과일, 무척이나 싱싱해 보였던 연어와 갖은 해산물들, 군침 바로 도는 수많은 베이커리, 치즈, 향신료, 맛난 디저트가 총집합 되어있는 북적북적 사람 사는 세상이다.

나열하면서도 그 곳의 풍경이 떠올라 즐겁다. 코벤트 가든은 원래 농지로, 건축가 이니고 존스로 하여금 광장과 건물을 짓게 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70년대까지 청과물 시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쇼핑과 휴식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맛있는 먹거리와 펍, 멋진 뮤지컬 공연, 거리의 예술가와 악사, 런던의 예쁜 연인들, 멋진 앤티크 가게, 아무 곳이나 자리를 잡고 자유롭게 앉아있던 사람들로 자유스러움과 여유가 가득한 멋진 힐링 공간인 것 같다. 영국 사람들은 간소하게 점심을 먹은 후 오후 3시~4시경 3층 트레이에 예쁘고 멋진 디저트와 함께 차 마시는 휴식시간 '애프터눈 티'를 즐긴다고 하는데 구경하느라 지친 그 시간 즈음 코벤트 가든에서의 흥차 한 잔, 런던을 느껴보는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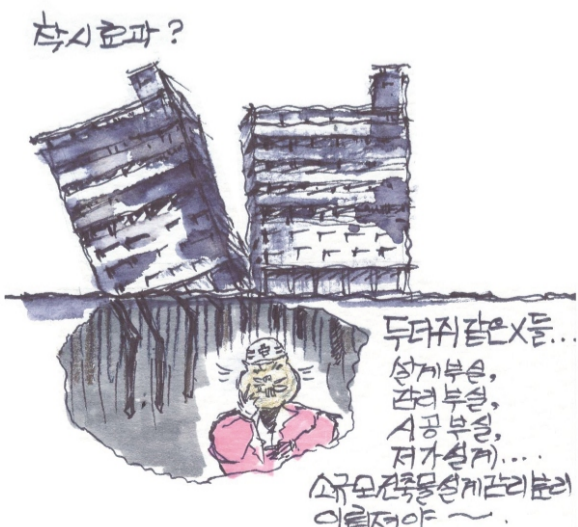


⑪ 주요 쇼핑거리의 중심 피커딜리 광장의 원형 교차로
⑫ 런던 시내 신호등앞 2층버스
⑬ 런던 시내 빨간 공중전화

유럽 여행지를 꼽으라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또 유럽으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들른다는 런던, 대도시답게 볼 것도, 경험해 볼 것도 많은 도시인 것 같다. 꼭 해봐야 할 것으로 누구는 열광의 축구 경기를, 누구는 우아한 애프터눈 티타임을, 누구는 자유롭게 런던 펍에서 맥주를... 이번 여행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아주 편하게 버스로 런던을 둘러 보았다. 다음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꼭 해봐야 할 목록으로 일정을 계획해 봐야겠다. 천천히 여유있게 돌아 보는 루트로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거나 번잡한 거리보다 좁은 골목도 둘러보고 백화점이나 브랜드 거리보다 스트리트 마켓에서의 온갖 종류의 구경거리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그 풍경에서 사소한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둔 런던 여행을 다시 하고 싶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건축사 만평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천일석재 CHONIL STONE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천일석재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혁신적인문화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일석재대표 강현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학부기고1

김 소 라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2014 졸업전시회, 그 끝을 향해



2014학년도 졸업작품전시회, 벌써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전주시재생을 주제로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로 나뉘어 준비하고 있다. 건축공학과는 전주의 전자상가와 공공상가를 사이트로 정하고 팀별로 건물 1~2개를 맡아 리모델링한다. 건축학과는 전주 터미널로 사이트를 지정하였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분산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부처간 협업과 패키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장소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외부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각자의 건축철학을 가지고 사이트를 재생시킬 것이다.

쉽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6월, 졸업작품전시회의 계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컨셉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 입면 모델링 등을 패널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설계 수업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2번, 3번째 듣고 있는 학생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며 실 하나, 공간 하나에 그들만의 건축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어 철야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작품을 Develop 시키고 있다.

진행하는 동안 팀원과의 마찰, 교수님의 크리틱, 현실적인 한계 등에 부딪히는 고난을 겪었다.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완성되더라도 졸업작품다운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배우는 과정임을 확신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컨셉을 어떻게 건물에 적용시킬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보름 남짓 남은 시간, 이 황금같은 시간이 아까워 우리는 오늘도 밤을 썰 것이다. 24시간이 모자라다.

학부기고2

양 태 선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둘로 쪼개진 건축학과·건축공학과, 단합이 필요해!

“체육대회를 해도 매년 우린 늘 꼴등인데, 왜 하는 거야?” 늘 있는 일처럼 불만이 섞인 어투로 동기가 내 뱃은 말.....동기가 말한 이야기 속에는 그 동안 원광대 건축과 학생들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잘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원광대 건축과 학생들이 행사 때 마다 단합이 되지 않았을까? 체육관련 행사에서 늘 꼴등을 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부터 건축학부가 없어지고, 건축학, 건축공학으로 분리하여 신입생을 모집한 까닭이다. 학부였을 때에는 공과대학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면, 건축학, 건축공학의 스탠드가 서로 나란히 붙어 있어 교류가 잘 되었으며 체육대회 경기 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스탠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독립적으로 되다 보니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전 경기마다 기권을 하는게 자연스러워졌다. 이 날 오전 수업을 끝내고 건축학 스탠드로 가보니, 여기 저기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 후배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경기 출전해서 자리가 비어 있는거니?”, “아니요, 모든 경기 다 기권해서 나갈 경기도 없어요.”

모든 경기 기권이라는 이야기에 다시 후배에게 물어보았다. “왜? 다 기권했어?” 후배는 “체육대회 나와야 출석체크가 된다고 해서, 애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공학 스탠드는 어디니?”, “모르겠어요. 공학 동기들도 안보여요.”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체육대회는 전 학년이 모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우의를 다지라고 마련한 자리인데, ‘출석체크’라는 명목 하에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말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공과대학 체육대회 때 건축학, 건축공학의 자리가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IFoU가 진행하는 여름학교 전남대학교의 주최 하에 개최

-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CAN BIG CULTURE SAVE THE CITY'라는 주제로



IFoU가 진행하는 여름학교(Summer School)가 광주에서 전남대학교의 주최 하에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IFoU는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의 약자로 도시 생활에 관한 국제 포럼이다. 이 기관은 대학의 통합네트워크이고, 연구시설이고, 도시계획(Urbanism 도시화)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지식센터이다. 그리고 건설 환경의 계획, 디자인과 관련된 정부의 전문적인 시

설들 또는 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통은 한 해에 한 번씩 여러 국가의 도시에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여름학교를 진행한다. (간혹 같은 해에 두 번을 진행하기도 하는 데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광주가 확정되었으며,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이번 여름학교는 “CAN BIG CULTURE SAVE THE CITY?”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완공을 눈앞에 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Asian Culture Complex)이라는 커다란 문화(BIG CULTURE)가 문화도시라는 칭호에 맞는 광주(CITY)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다양한 국가의 대학과 함께 하는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이 행사를 단순히 후원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를 진정한 문화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바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경훈 학생기자 hooni46@naver.com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취업전략과 준비' 주제로 특강 실시

- 지난 5월 30일 본대학 강의실에서 인력개발센터 진선덕 취업지원관 초청특강



호남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5월 30일 본대학 건학관 1325호 강의실에서 인력개발센터 진선덕 취업지원관을 초청해 '취업전략과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특강에는 건축학과 4학년 재학생 20명이 참석해 '성공취업을 위한 전략수집과 취업 성공사례, 학교의 지원사항' 등을 듣고 향후 취업에 대비토록 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년도 사진공모전 개최

- 오는 8월 29일까지 접수, '아름다운 도시 경관' 주제로... 대상 100만원



총상금 4백만 원이 걸린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제 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품작품 주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으로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출품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작품규격은 12x16 사이즈 사진이고 제출서류는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Tel. 062-521-0025~6)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 실속있는 비과세 예금
-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대출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서비스
- 신탁만의 참조합원 우대 서비스
- 빠르고 편리한 전자금융서비스

보다 더 큰 믿음과 혜택을 드립니다

신탁 vs 은행 비교 분석

구 분	신 협	은 행
비과세 혜택	1인당 예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부과
이익금 분배	조합원에겐 전부 환원(비영리 조직)	주주에게 배분(영리조직)

※ 신탁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예적금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2014년 대명리조트 여름 성수기 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주, 단양 두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 선착순 접수, 이외 지역은 신청불가, 객실형태 변경 불가
- ☞ 제주도 7/25 ~ 8/8 (15박) 패밀리리조트형
- ☞ 단양 8/1 ~ 8/15 (15박) 스위트취사형

광주에코디자인 주식회사

☎ 062) 527-8890 ~ 1

광주골프동호회,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해

- 지난 6월 3일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회원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광주건축사회 골프동호회는 지난 6월 3일 나주 골드레이크 CC에서 2014년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을 비롯하여 골프동호회 강현구 회장(조형 건축사사무소(주))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여 기량을 겨뤘다.

안길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타를 한 후, "이번 대회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노경윤 건축사, 전남 목포시의원 당선

- 지난 6월 4일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 사선거구로...

전라남도건축사회 목포지역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노경윤 건축사(새정치민주연합)가 지난 6월 4일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 사선거구에 출마하여 유효투표수 15,711표 중 4,122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노경윤 건축사는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초당대학교 건축학과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전라남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 위원, (사)목포미항가꾸기 시민운동본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 관련 전문분야 전문가문위원 위촉

-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제5회 이사회에서 회원 업무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19일 제5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건축사 회원업무와 관련한 세무회계 및 건축 관련 전문분야 전문가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기간 : 2014. 6. 1 ~ 2015. 5. 31 (1년)

전문분야	성명	소속	연락처		
			사무소	FAX	CP
세무회계	이은주	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	062)383-0002	062)383-1181	010-3256-9759
구조	이강일	(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 기술사사무소	062)232-9686	062)233-9686	010-3609-9686
전기/소방/정보통신	최문한	(주)기람엔지니어링	062)383-4662	062)383-4665	010-3605-4173
교통	윤 판	도시교통기술연구원	062)382-2013	062)382-2016	010-9292-6477
건축설비	송준영	(주)환경이에스피	061)381-1133	0505-342-4808	010-3608-0310
도시계획	정우곤	(주)원우기술개발	062)383-1620	062)383-1885	010-3637-1858

2014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 1) 교육기간 : 6. 27 (금) / 7. 25 (금)
- 2) 교육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3) 교육비 : 시간당 15,000원(60,000원/1회 4시간)
- 4) 교육인원 : 시간당 120명/1회당

구 분	6.27 (금)	7.25 (금)
1교시(18:30~20:30)	건축관련 법규 / 서울건축사회 조종기 회장	
2교시(20:30~22:30)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방법 / (주)굿엔지니어링 김지성 대표	

- 6)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7)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제27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건축부문 대상, 전남대 김예루, 박민용, 최지혜 학생의 'MEDITAINMENT'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27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입상작 시상식을 열고 6월 9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입상작 722점과 초대·추천·심사·운영위원 작품 등 총 920여 점이 선보였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20일 제27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제2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건축을 비롯하여 한국화, 양화(수채화), 조각, 공예, 서예(서각), 판화, 문인화, 디자인, 미디어 등 10개 부문 총 1263점을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한편, 건축부문 대상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박민용, 최지혜 학생의 'MEDITAINMENT'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제안 코너 운영

- 오는 7월 15일까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연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시민 제안 코너 운영에 나섰다.

시민 제안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며 제안내용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종전부지(광산구 도호동, 신촌동 일원의 832만㎡) 활용에 대한 의견 등이다. 참여 방법은 광주시(<http://www.gwangju.go.kr>) 홈페이지 상단의 시민참여-시민제안을 클릭 후 '군공항 시민제안' 코너에 게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도시계획과(062-613-4450,4452)로 문의하기 바란다.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지난 5월 30일, 전북 전주시 바울센터에서 여성회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북지역 여성건축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회장 김희순)는 지난 5월 3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바울센터에서 여성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첫 정기총회를 가진 전북여성건축가회는 전북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건축가의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업전개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 여성 건축가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작년 4월에 설립됐다.

한편, 전북여성건축가회는 창립 후, 작년 한 해 제2회 전북여성건축가대회와 2013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2013 내가살고 싶은 집 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임대	복합기	프린터	컴퓨터	시공	네트워크	프로젝터	서버
프로그램	AutoCAD	CADPower	Revit	Adobe	3D-Max	Sketchup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복사용지	유지관리	A/S	수리	설치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 상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 시행

- (1) 교육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 (2) 교육 장소 : 전주신일교회 ECM센터 4층(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10-7)
- (3) 수강신청기간 : 2014년 6월 03일(화)~6월 17일(화)
- (4) 교육 과목

교육 개설 과목	모집인원	시간일정	교육비	강사	비고
신재생 에너지설계	120명	10:00~12:00 (2시간)	20,000	최승길 박사 (주)선이앤씨	
친환경 건축설계(A)	120명	13:30~15:30 (2시간)	20,000	인익식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A, B 강좌 교육내용은 동일합니다.
친환경 건축설계(B)	120명	16:00~18:00 (2시간)	20,000		

※ 금번 개설한 전문교육은 전라북도 전회원(327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가급적 1개 강좌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오 혁 건축사 / 연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2로10번길 6-4
 - 조원철 건축사 / 자연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무진대로 976_5층 (농성동, 지승빌딩)
- * 전입**
 - 박현진 건축사 /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유림로 147-1 (2층,동림동)
- * 변경(상호, 소재지)**
 - 김갑동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형 (신규 사무소 개설) 광주 서구 마북로 132
- * 변경(소재지)**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오룡동) 광주디자인센터 609호
 - 유기준 건축사 / A&C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정로 82-1 3층(화정동)
 - 정명철 건축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4층(농성동)
 - 고재욱 건축사 / 아이디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중흥동 2층)
 - 은철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스페이스 광주 남구 용대로 112(3층)
- * 결혼**
 - 정인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호 2014. 05. 24 (토) / 자녀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25(순화리)
- * 변경(상호, 소재지)**
 - 신봉현 건축사 / 초록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39(향교동)
- * 변경(소재지)**
 - 성두호 건축사 / 우원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2길 12(중화산동2가)
 - 최현정 건축사 / 온고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2길 12(중화산동2가)
 - 오재영 건축사 / 방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우아동3가)
- * 부고**
 - 김유천 건축사 /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5월 11일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이용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레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27-0
- * 전입**
 - 한진수 건축사 / ㈜토방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유신동길 17-2
 - 조성호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길 18
- * 전출(광주광역시)**
 - 박현진 건축사 /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 변경**
 - 문명석 건축사 /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42-0
 -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0-0
- * 부고**
 - 김기호 건축사 / 기흥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5월 11일
 - 이학호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부친상 - 5월 15일

News 광주·전남·전북 6,7월 지역축제안내

- ▶ 04. 04 (금) ~ 11. 11 (화)까지 제9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http://bookmarathon.gen.go.kr/>)
- ▶ 06. 07 (토) ~ 06. 15 (일)까지 제18회 무주 반딧불축제
 - 전북 무주군 일원
- ▶ 06. 12 (목) ~ 06. 17 (화)까지 제84회 춘향제
 - 전북 남원시 관한루원 일원
- ▶ 07. 25 (금) ~ 07. 27 (일)까지 2014 영광 갯벌축제
 - 전남 영광군 백비위해수욕장 일원
- ▶ 07. 26 (토) ~ 08. 03 (일)까지 제42회 강진천자축제
 -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일원

※ 건축허가관련양식 기재란 주소를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0호, 2014.06.03, 제정]

○ 제안이유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에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설계 공모 우선 적용,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설계 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조 및 제3조)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추진성과,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 등을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을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변경으로 정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성과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제5조)
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출 및 매출 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및 임금 수준 등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다.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개발할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대학 등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제10조부터 제13조)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축진흥원, 건축사협회, 대학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50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 100이상) 입주하고 입주사업자의 30퍼센트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고가장비 및 작업실의 공동사용, 홍보 등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마.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건축물(제17조)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과 지역자치센터 등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우선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제20조 및 제21조)
1)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연구원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8호, 2014.06.05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에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공포, 6.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집인 : 서재형
전담기자 : 광승국
편집위원 :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 월간
등록일자 : 2010-01-25
인쇄·제작 :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건축과 에너지 절약

그 어느 시대보다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는 현대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고 시행된 제도는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일 뿐이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간항 557,400원
마이다스아이티 350,000원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소중한 인연을 맞은지 한해가 지나고...



지난해 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때 선물로 들어왔던 화분들이 사무실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출근하면 30분 가량을 들여 화분에 물주고, 분무기로 샤워도 시켜준다.

집에서는 아들, 딸이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무실에 오면 살아있는 꽃과 나무들이 나의 자식 같다. 키 큰 아이, 작은 아이, 마른 아이, 귀여운 아이, 손길이 많이 가는 아이, 듬직한 아이. 허약한 아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는 꽃과 나무들에게 대화도 한다. '오늘도 우리 같은 공간에서 즐겁게 보내자. 많이 덤피? 와 또 꽃망울이 맺혔네. 새순이 돋아나고 있구나. 추운데 괜찮겠니? 조금만 더 버티자 따뜻한 봄이 올 거야~'

혹독한 더위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여름, 휴가 다녀온 사이에 두 그루가 죽었다. 가장 무성하고 끄떡없을 것 같았던 고놈들이 너무 허망하게 말라 죽었다. 맘 한쪽이 아렸다. 들어올 때 내 키보다 더 크게 무성했던 철쭉은 한해를 지내더니, 단 5개의 꽃망울만 생겼다. 아무래도 이 좁은 공간에서 사는 건 고통일 것 같아 시골집 화단에 심어주었다.

우아한 자태의 동양난들은 이따금씩 번갈아가며 꽃망울을 터트려주고, 은은한 향기를 아낌없이 뿜어 처칠 때 기분전환을 시켜준다. 우리 아이들의 '이쁜 짓' 처럼 말이다.

내가 원해서 맺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온 소중한 인연들이다.

가끔은 빼앗긴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 일에 지쳐 소홀히 대할 때도 있지만, 살아있는 한 나와 함께 할 것 같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 그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득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얀목련

백양사 초입

후미진 옛길 서있는 하얀목련

그 속으로 들어서는 또다른 날 봄니다

그렇게 옅은 꽃잎은 처음 이었습니다

수액을 타고 내려가는 백암산 저 밑끝에

한세상 나누는 조율사

밖에서 만나는 겁니다 차마

꺼지 못하고 코로 입맞춤하며 맞이합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불 밝히는 가로등 마냥

하양등을 지상 향해

헌향하는 그녀 맘과 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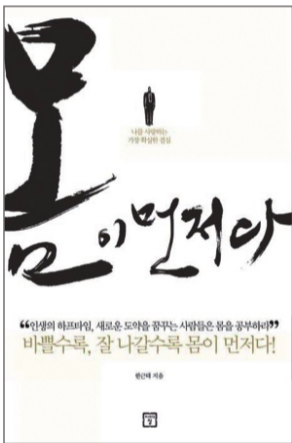
산안개 뿜어내는 수액

환하게 흠 뿌리는 겁니다

책 소개

「몸이 먼저다」 한근태(컨설턴트) 저 / 미래의창

김현정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현대자인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일상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집필한 한근태씨가 최근 새로 낸 책이다.

저자는 처음에 트레이너들의 멋진 몸매와 좋은 피부에 이끌려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하루 한 시간 일주일에 3~4번의 운동이 자신을 "구원"

했다고 고백하며, 운동을 시작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과 몸과 운동에 대한 지식, 운동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한다.

책을 읽는 내내 운동 애찬론자로 빙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다.

저자의 언변은 무척이나 유쾌하고 시원시원하다. 책을 읽으면서 지루하거나 뻘뻘한 얘기라는 반감이 들지 않고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가 건축설계 또는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짐작컨대, 이 책은 한번쯤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근무시간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와 씨름하고 그것도 모자라 야근과 밤샘근무를 하고 수많은 인간관계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나 또한 일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반복하며 피곤에 찌들린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경험상 피곤하다고 주말 내내 집에서 잠을 자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나가 걸거나 운동을 하거나 간단히 여행을 하는 편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

"주말이 이렇게 그냥 가버렸네" 보다는 운동이나 여행을 하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훨씬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요즘 사회는 삶의 만족도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건강관리와 여가활용을 잘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 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시간이 없거나 몸이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로는 계속 쌓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결심 「몸이 먼저다」 바벨수록, 잘 나갈수록 「몸이 먼저다」 라는 표지의 글이 참으로 공감이 간다.

많이 바쁘고 피곤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면 잠깐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책을 권해본다.

건축사 Photo



“함박웃음”

기나긴 어둠과 새벽을 헤치고, 이제는 웃음과 활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에게도 최근의 사례들은 분명 밝지만은 않았으나, 이제 다시 함박웃음을 짓는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김성 건축사(주)성김엔지니어 건축사사무소(광주)

사진속 이야기



비상을 위한 반복, 밀워키 미술관 (Milwaukee Art Museum)

높은 비상과 의지를 담기 위해 건축물은 이렇게도 많은 반복을 담고 있다. 수많은 반복을 가지지 않았다면 건축물은 결코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강형주/네덜란드 건축사